

:: 내가 매일 기쁘게 ::

:: 참된 깨달음 ::

풀무 불 속 넷째 사람

다니엘서 3장에는 금 신상에 절하지 않아 일곱 배나 뜨거운 풀무 불에 던져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흔히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고 살아 돌아온 기적에 감격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사건의 정점은 따로 있습니다. 세 친구를 불 속에 던진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 외칩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단3:25).

왕이 놀란 것은 불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세 친구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격하다가도, 막상 현실의 어려움이나 곤경을 다시 마주하면 금세 낙심합니다. 다른 성도들의 간증을 들으며 ‘왜 내게는 저런 복을 주지 않으실까’ 원망하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지갑에만 시선이 쏠려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사는 내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친구가 불 속에서 자유롭게 거닐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이 비껴갔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의 한복판에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감사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주실 무언가에 집착하느라 지금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풀무 불같은 세상 속에,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로 온전히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심에 감사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믿음이 허락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합3:18).

전호정 집사

일생을 성령으로!

얼마 전 《예수 혁명》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다. 영화는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의 거친 생각과 흐름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복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영화에서 척 목사는 사람들의 반대에도 히피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신발도 없이 들어온 더러운 발을 직접 씻겨주었다. 그를 통해 왜 예수님께서 비난을 받으시면서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는지를 깊이 깨닫게 된다. 참된 부흥은 사람의 계획, 프로그램, 웅장한 건물이 아닌,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 상처 입은 영혼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부흥된다는 사실이다.

영화에서 로니의 모습은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는 뜨거운 사역자였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많은 영혼을 인도했다. 그러나 점차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기 능력으로 착각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눈이 멀어 스스로 주인이 되려 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은혜를 자기 힘으로 이루어 낸 것처럼 여기는 순간, 예수님이 아닌 자신을 드러내는 자리에 서게 된다.

우리 또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내 이름이 앞에 서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이 흐려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 안에 있는 교만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길을 잃게 된다.

우리에게는 처음 시작했던 마음으로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달려오신 총회장 목사님이 좋은 본보기가 되신다. 초지일관, 칠전팔기,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복음만을 전해오신 한결같은 중심의 근원인 기도의 무릎이다. 사람은 쉽게 넘어지지만, 오직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 우리, 꺾대를 향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영적 통찰을 품고 사명의 길을 전심으로 달려나가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3:3).

양은정 전도사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노량진 교육관 기도회

장소: 노량진 드림스퀘어 D동 3층
저녁 8시 (월, 화, 목, 토)
문의: 02. 533. 9191

2026 하계산상집회

- * 날짜 : 첫째 주 8월 3일(월)~6일(목)
둘째 주 8월 10일(월)~ 13일(목)
- * 장소 :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 * 문의 : 02. 533. 9191(참가료는 개인지참)

:: 주님을 향한 노래 ::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신앙(信仰)이란 단어의 한자를 살펴보면 ‘믿을 신(信)’, ‘우리를 양(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양(仰)’은 ‘의지하다’, ‘의뢰하다’, ‘머리를 쳐들다’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리해보면, 신앙이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121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시121:1~2).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만민과 만물을 들어서 우릴 도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저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다 보니 감정이 북받쳤고, 눈물까지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할 수 있는 한 어떻게든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순간에 그분은

절 돕지 않았습니 다. 아예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 다. 처음에는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목사님의 지혜의 말씀을 뼈저리게 느끼고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그 일이 있은 지 1년 후쯤, 똑같은 문제가 또 생겼습니 다. 그때 저는 그분을 찾아가지 않았습니 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상황을 역전시켜서 일주일 만에 해결해주셨습니다.

역대하 16장에 남유다의 아사 왕은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 아람 왕 벤하닷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은금을 보내고, 아버지들 사이에 있었던 동맹까지 얘기하며 설득하여 결국 도움을 받습니 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견자 하나니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한 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래도 아사 왕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더니, 노년에 발에 종병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만 찾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역대하 28장에 아하스 왕도 에돔과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강대국인 앗수르에

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앗수르 왕은 와서 돕기는커녕 오히려 더 괴롭혔습니 다. 성전과 왕궁, 백성들의 재물까지 취해서 앗수르에게 바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이방 신을 찾으며 도움을 구했던 아하스 왕은 결국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열왕의 묘실에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반면, 그 아들 히스기야 왕은 앗수르 왕 산헤립이 하나님을 조롱하며 쳐들어온다고 협박할 때, 오직 하나님만 찾으며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사 앗수르 군대 185,000명을 진멸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길은 시편 121편의 기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갔던 순례길과 동일합니다. 강도의 위협, 맹수의 위협, 더위와 추위와 같은 문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며 가는 황량한 광야 길입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을 마주하셨습니까?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이호민 전도사



서울 인천 연합 여름 캠프

- * 날짜 : 8월 2일(주일)~4일(화)
- * 장소 : 인천 예수중심교회
- * 문의 : 02. 533. 9191(지교회는 본부로 연락)



봉우 컬럼

첫 단추를 잘못 끼었다면

웃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나 단추를 채우다 결국 마지막 단추는 끼울 자리가 없을 뿐 아니라 웃이 한쪽으로 비뚤어져 버린다. 그럴 때 무조건 다 풀고 다시 처음부터 끼워야 한다.

인생도 그렇다. 처음 방향이 잘못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는 더 커진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알면서도 되돌아오지 못한다. 체면이 걸리고, 자존심이 상하고, 남의 시선이 두렵기 때문이다.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다시 시작하느냐'고 말한다. 그러나 잘못된 길을 계속 가는 것 이야말로 가장 큰 손해다.

얼마 전, 나는 서울성전과 관련하여 담당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잘못되었으면 과감하게 다시 시작하라." 조금 늦더라도 바르게 가는 것이, 빨리 가면서 잘못된 길을 가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이다.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러나 그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눅15:18) 결단했다. 그 결단이 그의 인생을 다시 살렸다. 만일 체면 때문에 끝까지 버텼다면 그는 돼지우리에서 생을 마쳤을 것이다. 반대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의 눈치를 보았고,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 했다. 결국 그는 왕위를 잃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

후회보다 더 아픈 것은 없다. '그때 돌아섰더라면', '그때 결단했더라면', '그때 용서를 구했더라면', 이러한 후회는 사람을 오래도록 괴롭힌다. 그러나 깨달았을 때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라.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보다 돌이키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사55:7). 회개는 실패의 표시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문이다.

혹시 지금 신앙과 삶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가? 그렇다면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늘 다시 시작하라. 성공자는 잘못 끼운 첫 단추를 끝까지 붙잡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과감히 풀고 다시 끼우는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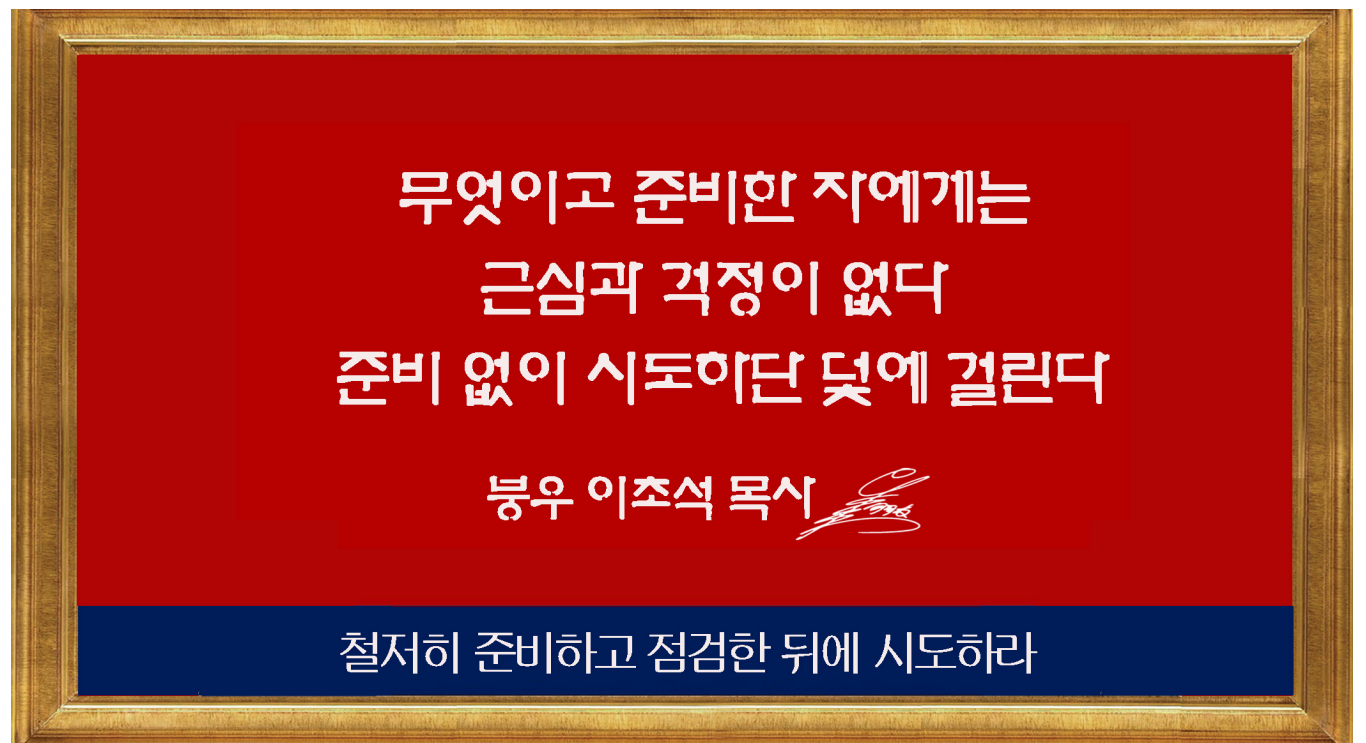
준비하지 않는 자는 망하기로 계획한 자다

2026년도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우리 교단은 강도 높은 영적 전지훈련 준비에 들어갑니다. 교육부서는 성경캠프 및 수련회 준비에 여념이 없고, 이어서 2주간 진행될 하계산상집회는 우리 성도들의 강력한 영적 충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알차게 잘 보내면, 우리는 충전된 영적 동력으로 하반기 일정을 넉넉히 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떤 거센 파도가 밀려와도 감당하고 수용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갖추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우리 인류가 가보지 않은 대변혁의 길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국제질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을 거

설명할 수 없는 기적적인 역사로 식민과 전쟁을 넘어 민주화와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진행했고,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커다란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및 이란 전쟁으로 증명된 우리의 견고한 제조업 기술 및 인프라는 AI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확실한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지구촌에서 한 나라가 이처럼 강력한 하드 및 소프트 파워를 갖춘 예를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우리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세기의 실패를 거울 삼아 오늘을 잘 준비하면 머잖아 지구촌을 선도하는 글로벌

을 하려 합이나라"(딤후2:1~2).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롬13:1~2).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야나 진영을 떠나서 이 나라를 위해, 나라를 이끄는 지도층을 위해 그들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바라보고 충직한 공복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들이 영평한 길로 가지 않고,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정도를 걸어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치며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나토(NATO)라는 미국 주도의 강력한 안보우산 아래 오랜 평화를 구가하던 유럽이 각자도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후 나토를 중심으로 확립된 70여 년의 국제질서가 해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 시대를 넘어 AI 대전환의 파고는 지난 세기 산업혁명과는 비견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세기 초 세계 변혁의 물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후 반세기에 이르는 시간을 식민과 전쟁에 휘말려 엄청난 국가적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파워로 우뚝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육체를 벗는 날까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듯이 우리나라가 강해야 하고, 잘 살아야 하고, 전쟁이 없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을 통해 말했듯이,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평안한 신앙생활을 위해 이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가 자유롭게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내 이웃과 이 나라를 넘어 전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준비하지 않는 자는 망하기로 계획한 자"라고 목사님은 누누이 강조하십니다. 다가오는 위기를 두려워하지만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철저히 준비한다면,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우리 앞에, 위기가 클수록 더 큰 기회가 되어 난사형통(難事亨通)의 역사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철저한 준비만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철저히 준비하여 철저히 성공합시다. **한은택 목사**



전국 청소년 연합 수련회

중고등부 7.27(월)~29(수) 청년대학부 7.30(목)~8.1(토)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잠12:24)

세상은 보물찾기다, 부지런히 찾아라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단 한마디입니다.

“부지런하라.”

이 설교를 저는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늘도 다시 외치라고, 다시 강조하라고 하십니다.

“부지런히 찾으면 찾고, 부지런히 구하면 얻고, 부지런히 두드리면 열린다.”

성공하기 위해,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세상은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지만, 단수가 만수를 이기는 법, 하나님은 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부지런해라.”

조선의 대학자 다산 정약용의 제자인 황상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면 둔한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부지런하라.”

“어찌하면 막힌 것을 트이게 할 수 있습니까?”

“부지런하라.”

“어찌하면 거친 것을 연마할 수 있습니까?”

“부지런하라.”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7~8절에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은 찾습니까?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이 찾고, 부지런히 두드리는 사람이 열고, 끝까지 구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부지런한 농부의 밭에는 잡초가 없다

어린 시절 소풍 갔을 때, 선생님이 미리 보물을 숨겨놓고 보물찾기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갖고 싶은 상품이 미리 다 쌓아놓고, 선생님이 ‘가서 상품이 적힌 종이 쪽지를 찾아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의 말을 귓등으로 듣고 자기네들끼리 수다 떨고 싸 온 것들만 먹고 놀입니다. 그러나 어떤 아이는 선생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부지런히 찾습니다. 누가 찾습니까? 찾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보물찾기와 같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보물찾기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축복도, 기회도, 은혜도, 지혜도, 건강도, 물질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찾아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누리지 못합니다. 그 차이는 ‘부지

런하냐, 게으르냐입니다. 성경은 부지런히 보물을 찾으면 거기에 ‘부자가 된다’고 쓰여 있고(잠10:4), ‘머리가 된다’고 쓰여 있고(잠12:24), ‘마음의 풍요가 있다’고 쓰여 있고(잠13:4), ‘소망의 풍성함에 이른다’고(히6:11)고 쓰여 있습니다.

반면 게을러 아무것도 찾지 않은 자들은 가난하게 되고(잠10:4),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며(잠10:26), 남의 부림을 당할 것이고(잠12:24), 어려움이 많을 것이며(잠15:19), 그리고 구걸해도 얻지 못할 것(잠20:4)이고, 또 패가망신할 것이며(잠18:9), 굶주릴 것이고(잠19:15), 쇠퇴할 뿐더

러(전10:18),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다
고 말씀
합니다(마
25:26~30).

왜냐?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잠자는 것을 좋아하고(잠6:9), 일하는 것을 싫어하며(잠12:27), 헛된 정욕에는 강하고(잠21:25), 부질없는 핑계가 많으며(잠22:13), 폄하하는 자(딤후5:13)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시대에 맥을 그은 인물들이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위인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선전들을 보세요.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부지런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부지런함이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그를 올려놓았습니다. 이삭도 우물을 하나만 판 것이 아닙니다. 빼앗기면 또 파고, 막히면 다시 파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백 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 집에서 밤에는 추위와 낮에는 더위와 싸우며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 부지런함이 큰 부를 이루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일하여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살전2:9) 말했습니다. 한 손에 생업을, 한 손에 복음을 들고 부지런히 뛰었다는 겁니다.

저도 부지런이라면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어떻게 성공했느냐.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느냐? 어떻게 세계 선교를 하느냐?”고 묻습니다. 제 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노력했

다.” 저는 스스로 나타낸 제 자신을 용납할 수 없어서 더욱 부지런을

떨
니
다. 누
구 말마
따나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
은데 나타내고 해태해

서야 되겠습니까? 그냥 오늘의 이 초석이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연구하세요. 부지런히 노력하세요. 부지런히 내게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부지런히 운동하세요. 부지런히 내 소 떼와 양 떼, 즉 기업을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세요. 부지런히 기도하세요. 부지런히 말씀을 상고하세요. 부지런히 전도하세요.

게으름은 단순한 성격이 아닙니다. 성경은 게으름을 ‘악’이라 단정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탕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악입니까? 죄는 나를, 악은 남을 해치는 것일진대, 게으른 자는 자신만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직원은 회사에 손해

를 끼치고, 게으른 부모는 자녀에게, 게으른 주의 종은 교회에, 게으른 지도자는 국가와 단체에 손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잠10:26) 말씀하신 것입니다. 표현이 너무 적절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은 한낱 개미를 보고 그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하셨을까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잠6:6~8).

성공자들의 친구는 부지런함이다

“나는 운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운도 부지런하고 노력하는 자와 동행하고, 친구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감나무 밑에서 입이나 벌리고 누워있는 자와 부지런히 나무에 오를 방법을 찾는 자 중에 누가 감을 먹을 확률이 높습니까? 입으로 감이 안 떨어지면 운이 없는 겁니다.

게으름 자는 늘 시간의 노예가 됩니다. 매일 빈둥빈둥 놀고, 해가 중천에 뜨도록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오늘 할 일을 하지 않고 ‘내일 하지~’ 합니다. 그러다 막상 D-day가 되면 시간에 쫓겨 조금씩 허둥대다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결국 모든 것을 망치게 됩니다.

여러분은 시간의 노예가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 되십시오. 부지런하면 됩니다. 부지런한 자는 미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여유를 누리며 삽니다. 시간보다 앞서 달립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자를 지혜로운 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지런함이 재능을 이깁니다. 부지런함은 환경을 이깁니다. 부지런함은 가난을 이깁니다. 부지런함은 실패를 이기고, 기적을 창출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찾아라. 구하라. 두드려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보물찾기 장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부지런히 찾는 자의 것입니다. 움직이는 사람이 찾습니다. 찾는 사람이 얻습니다. 땀 흘리는 사람이 거둡니다. 부지런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부지런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귀와 영광을 맡기시며, 부지런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부지런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생의 보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오늘의 메시지 ::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내 마음에 성공이 있다

2026년 7월의 대한민국은 격변과 혼란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여러 사회지표와 연구 결과들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균열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적 이념 갈등은 타협점을 잃고 극단으로 치닫고 있으며, 빈부 격차로 인한 계층 간의 위화감, 남녀 간의 젠더 갈등, 그리고 급격한 고령화 속에서 불거지는 세대 간의 단절은 이제 일상적인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치와 사회의 장은 감정의 전장이 되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냉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만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이처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서로를 향한 적대감이 팽배한 시대에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리에 서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 된 인간 사이의 영원한 단절을 이어준 생명의 다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원수 되었던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힘과 억압으로 유지되는 일시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이루어지는 진정한 샬롬(Shalom)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사명은 바로 이 십자가의 정신을 세상 한가운데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편을 가르고 장벽을 높이지만, 교회는 그 장벽을 허물고 다리를 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형제를 미워하고, 세대와 계층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정죄하는 세상의 흐름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분열된 사회의 갈라진 틈새에 서서 화해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화해는 결코 값싼 타협이나 맹목적인 동의의 의미를 지니지 않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상대방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는 ‘공휼(Compassion)’에서 시작됩니다. 청년들의 절망적인 취업난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기성세대가 가슴 깊이 공감하고, 노년층의 소외감과 외로움을 젊은 세대가 따뜻하게 품어줄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됩니다. 이념의 잣대로 서로를 난도질하기 전에 그 이면에 숨겨진 두려움과 상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정죄의 칼날이 아니라 상처를 싸매고 품어주는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 당시 사회에서 배척받던 모든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정죄하기보다 품어주셨고, 가르치기보다 먼저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를 향해 돌을 들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갈등하는 이 땅 위의 상한 심령들 위에 강물처럼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상화평 목사

미국 CNN 방송 등 많은 매스컴들이 운동과 신앙심의 차이점을 보도한 바 있었다. 뉴욕 대학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준 후, 곧바로 근처의 헬스클럽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어느 쪽이 더 건강에 좋은 곳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답은 기도하는 쪽이라고 보도했다. 이것은 뉴욕대 연구진들이 수년간 연구 끝에 밝혀낸 결과이다. 교회에 충실히 나가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운동에 열중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장수한다는 것이다.

철저한 기독교도였던 백범 김구 선생도 젊어서 호구지책으로 관상을 배웠는데, “관상은 신상만 못하고, 신상은 심상만 못하다.”라고 말했다. 세상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서 승패가 갈린다. 성경 또한 증거한

다.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4:23). “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이 참 복이라 증거한다(요삼1:2).

총회장 목사님도 사지가 마비되었을 때, 한쪽 눈이 터져서 고통받았을 때, 간이 90% 굳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이겨내셨다고 간증하신다. 그러니 믿음을 앞세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운동도, 사업도, 일상도 살아간다면 금상첨화 아니겠는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다(시 14:1).

우리, 지혜로운 자가 되어 온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자. 주신 은혜와 복으로 넘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김상욱 목사



:: 깊은 곳에서의 울림 ::

:: 생명의 말씀 ::

감사는 사막에도 단비를 내립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학원 강사였던 그녀는 신입으로 입사한 뒤 몇 년 동안 성실히 일한 덕분에 원장의 신임을 얻었고, 강의는 물론 강사 채용과 관리까지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장이 모든 강사를 불러 모았습니다.

“현재 학원 사정이 좋지 않아 다음 달부터 급여를 불가피하게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시고, 이 조건으로 함께할 수 있을지 각자의 뜻을 이야기해 주세요.”

두 명의 강사는 줄어든 급여로는 일할 수 없다며 학원을 떠나겠다고 했고, 그 자매 역시 고민하던 중 제계 전화를 걸어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자매님, 총회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흐르는 물 한 컵에도 은혜를 잊지 말라’고요. 자매님이 강의 경험 없었을 때 뽑아 자리를 주셨던 분이니, 저라면 이번 급여 삭감을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일해서 학원을 살리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자매는 결단한 뒤 이전보다 더 성실히 일하며 학원의 어려운 시기를 함께 버텨냈습니다. 다행히 학원은 1년 뒤 다시 매출을

회복했고, 재계약을 하는 날 원장은 그 자매를 따로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학원이 어려울 때 내 일처럼 걱정해주고 더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요. 삭감했던 급여는 다시 반영하고, 그보다 더 올려서 드릴게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급여 삭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이 컸어요. ‘내가 이 학원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나에게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 싶었지요.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을 생각해보니, 원망하던 마음이 감사로 바뀌었어요. 강의 경험이 전혀 없던 저를 받아주고 키워준 학원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거든요. 은혜를 깨닫고 감사로 마음이 바뀌자 하나님께서 더 좋은 대우로 갚아주셨어요!”

목사님의 말씀처럼 감사는 ‘기적을 창출하는 통로’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감사와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옥문이 열렸듯이, 감사는 죽음도 피해 가고, 감사는 막힌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서든지 범사에 감사하여 만사형통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김진실 사모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이라는 이론 신학을 가르치다 보니 드는 생각이다. 견고한 이론에서 바른 실천이 나온다는 것을 말이다. 그런데 그 반대로, 실천과 적용이 없는 이론 또한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론신학과 실천신학이라는 짝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다. 마치 믿음을 강조하는 히브리서와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가 뱉 수 없는 하나의 짝이듯 말이다. ‘배움의 끝은 실천이다’라는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처럼, ‘배움과 실천’ 둘 중 어느 것 하나를 도외시키는 순간 문제가 되어왔다는 것이 교회의 교훈이자 결론이다. 공적이고 객관적인 교훈은 귀담아들어야 한다.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비유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차이점은 기름이 있는가이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이라는 형식은 갖췄으나 기름이라는 내용물이 없었다. 내용물을 갖춘 다섯 명은 슬기롭다는 칭찬을 듣는다. 확실한 신앙의 내용물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신앙의 내용물은 바로 배움과 실천이고, 이론과 경험이다.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 피조세상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배움이 있

어야 온전한 열심을 내며 바르게 실천할 수 있다. 저돌적인 행동가 베드로를 멈춰 세워 물으신다. 바른 신앙 내용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지 말이다(마16:15). TV에 나오는 각 분야의 달인들을 보면, 대충 감각으로만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감각적 경험은 수많은 이론적 시행착오의 결과물이다. 머리의 이론과 감각적 경험이 동떨어져 있지 않다. 자기가 아는 것을 실천하며, 생각하는 것을 행동한다. 자기 나름의 지론이 감각적 경험을 발전시킨 것이다. 처음부터 신속 정확했던 것이 아니라, 정확함이 쌓이고 쌓여 신속해진 달인이 된 것이다.

아담 이래로 죄 아래 있는 인류는, 균형 잡는 감각을 상실했다. 헬라인들은 지식적 이론에만, 유대인들은 경험적 현상에만 몰두했다.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이유이다. 성령이 조명하시면, 의지적인 행동가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지적인 탐구가는 행동하여 열매 맺도록 복돋우신다. 배움과 실천의 ‘균형’이 우리 신앙의 내용물이 되도록,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호6:3) 하고, 아는 것을 또한 행동해야(약2:26) 슬기로운 신앙인이다.

송직화 목사